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나서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6.06.18 18:05 | 10면

## 김해 진례저수지 일원에서 오염원 제거 등 사회공헌활동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17일 김해 진례저수지 일원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지난 17일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진례저수지 일원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김해양산부산지사 직원들은 저수지 주변에 무단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오염원 제거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진례저수지를 찾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 투기 및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깨끗한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해양산부산지사 손흥모 지사장은 "이번 활동이 진례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환경정화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과 체감형 사회공헌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